

### 부산철도정비차량불자회 성지순례

부산철도차량정비차량 불자회(회장 최비석)는 8월 25일 경남 함양 검의사와 벽속사 서암, 전북 남원 실상사로 순례를 다녀왔다.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동참한 이날 도법스님은 법문을 통해 "단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이기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며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앞장서 보호 할 것"을 당부했다.



### 승만부인회 김제 망월사 등 참배

철도청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 가족모임인 승만부인회(회장 김재남)는 8월 24~25일 김제 망월사, 부인 개암사, 내소사, 서산 개심사, 간월암 등 서해안지역 사찰을 순례했다. 매년 가져온 수련회를 성지순례로 대체한 것. 승만부인회 회원과 법우회원 25명이 가족 단위로 참가해 가정의 화목과 직원들의 무사고 운전을 기원했다.



### 경산조폐창 금강회 수련대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8월 24~25일 합천 해인사 문수암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한 회원 및 가족 50여 불자들은 108참회와 108배, 참선 등 용맹정진을 펼쳤다. 수련회에 이어 해인사 성보박물관을 참배하기도 했다. 윤종우 회장은 "수련회에서 회원들이 흘린 땀은 집다운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값진 보배"라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국회정각회 직원신도회 창립 20주년

# 조직 대폭정비 재도약 나서

### 정각선원 개원 등 국회 불심 모으는 구심점

### 초창기 공무원불자 신행의 '선구자' 역

입법공무원불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중환·국방위 전문위원)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도약에 나선다.

국회직원신도회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창립에 힘입어 20여명의 회원으로 82년 5월 창립한 이래 법회와 성지순례, 큰스님 초청법회 등을 열어 활발한 신행활동을 보여왔다. 95년에는 타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내에 정각선원을 개원, 국회의원과 사무직 직원, 보좌관, 비서관, 운영회사 직원 등의 기도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각선원 개원을 계기로 회원이 150명을 넘어서는 등 국회내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

데 신행활동을 펼치는 직장불교의 태동과 불교계의 권익 옹호를 위해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서, 회원수첩 제작, 법회와 경전공부의 정례화, 회비 납부 체계 마련, e메일을 통한 소식지 발행 등 골목길 만한 성과를 끌어내는 등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아 왔다. 그 결과 창립 당시 정거적인 모임조차 갖지 못할 만큼 어려운 여건이었던 국회직원신도회는 16대 국회내 정각회가 구성되지 않은 빈자리를 메우는 신행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국회직원신도회는 산업은행, 증권거

래소, 방송사 불자회 등 여의도지역 직장불교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에게 정각선원을 개방하는 문제도 고려중이다. 또 창립 멤버를 비롯한 퇴직한 회원들과 현 회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 회원간 정을 쌓아 나갈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역임한 과재규 씨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20년전 직원신도회를 결성했던 불자들의 돈독한 신심이 오늘의 직원신도회로 성장하는 초석이 됐다"며 "앞으로도 굳은 신심과 하나된 마음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직원신도회는 8월 28일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무어스님(봉화 속서사 조실)을 초빙,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6대 국회 원 구성 지연과 본회의 등 바쁜 일정으로 창립기념일보다 3개월여 늦춰 열린 이날 법회에는 권익현 전 정각회장, 하순봉 한나라당불자회장, 과재규 초대 회장 등 150여명이 동참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조직정비 등 재도약에 나섰다. 사진은 8월28일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열린 무어스님초청 기념법회 모습.



### "한나라·민주당 불자회와 접촉 정각회 구성 중간 가교역할"

김중환 직원신도회장 인터뷰

"정각회 구성을 위해 한나라당불자회, 민주당 연등회와 접촉을 가질 계획입니다. 두 당당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신도회가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각회 구성은 모든 불자들의 바람"이라고 말하는 김중환 국회정각회

### 경남공불련 대의원총회 한나라당 불자의원들

### 시·군불자회 활동 점검 당직 진출 두드러져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석)는 7~8일 남해 보리암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경남지역 수해복구 봉사과 관련해 경남도청불자회와 창원, 마산, 밀양시 등 20개 시·군불자회의 활동을 점검한다. 또 이달말로 예정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사무국 임원 추인, 각 시·군 불자회 임원 및 신행활동 소개 등도 이뤄진다.

### 우리 모임에선

### 전국경찰불교회 사무실 현판식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는 5일 오후 5시 경찰청 경승실에서 사무실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에 이어 경찰청불교회는 법당에서 신중행화 점안법회를 갖는다.

### 법륜교수불자회 새 임원진 구성

법륜교수불자회(회장 강수곤)는 강수곤 신임회장 선출에 따라 8월 20일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부회장에 도태성 교수(영진전문대), 총무이사에 이정희 교수(경남대), 사업이사에 장호경 교수(경산대), 편집이사에 이강호 교수(영남대), 정보이사에 노용호 교수(대경대), 감사에 박용익(경산대), 이준일 교수(대구보건대), 불교문제위원장에 김태업 교수(대구대)를 각각 임명했다.

## "목탁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 서울·경기 직장·단체 임원 의식집전 교육



8월27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린 의식집전 교육에 참가한 불자들이 목탁연습을 하고 있다.

27일 서울 사간동 법륜사, 50여명의 30~50대 남녀들이 목탁 하나씩을 들고 주경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과 목탁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다. 조금은 생소한 듯, 조금은 신기한 듯, 얼굴엔 어린이가 새로운 물건을 접할 때 보이는 표정이 나타난다. 목탁을 잡고 있는 이들은 서울경기지역 직장·직능불교단체 임원들, 건설교통부 불자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문화방송 불교연구회 등 25개 단체 임원들이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법륜사에서 의식집전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 교육은 불교의식의 이해, 집전방법, 의례별 찬불가 집전방법 등 교육을 시작하면서 주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500년 동안 부처님 법이 전해져 줄 수 있었던 것은 계율 덕분"이라며 "개인이 지켜야 할 '계'와 대중이 지켜야 할 '율'을 알아 불교를 알 수 있다"고 지적, 참

석자들에게 의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목탁 집전교육 도중 대한공업진흥공사 광복회 허선희 총무(31)는 "스님이 치는 목탁소리는 듣기 좋은 데 내가 치는 건 듣기가 거북하다"며 "스님 목탁보다 내 목탁이 작아서 그런 것 같으니 목탁을 바꿔 달라"고 주문해, 주위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 농협불교회 김영일 총무(41)는 "작년에 이들 동안 교육을 받았으나 미진해 올해 다시 교육을 받는다"며 "작년부터 참여인원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져 직장에서도 법회를 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은 29일 찬불가 배우기, 9월 3일 법회의식의 절차와 집전방법 등으로 이뤄졌고, 5일에는 실수 및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남동우 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낱집인 **쌍웃따니까야**를 아십니까?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는 화두에 대해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답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역사적인 부처님의 원음(原音) 가르침 **한권으로 읽는 쌍웃따니까야**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국빠알리성전협회  
Korea Pali Text Society

신간판 / 496쪽 / 값 18,000원

<빠알리성전협회에서 나온 책들>  
쌍웃따니까야 전집(전12권) 300,000원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9,000원  
신간 맞지따니까야 제1권 값 30,000원  
범어문법학  
빠알리사전

이 책은 불서총판 운주사(02-3672-7184)나 이사야문,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범보시 주문도 받습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말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Korea Pali Text Society  
전화 02-2631-1381 팩스 02-2631-3770 kptsoc@kptsoc.org